



2021 Copyright Accademia Nemo Srl
All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and is covered by copyright
laws.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ory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i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patent office

BLUE

각본: Luca Chiarotti, Federica Fabbri e Stefano Casini

서론

“Blue”는 새로운 삶을 살 때마다 다시 만나는 두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을 때마다 새로운 삶으로 환생하기 전에 영혼이 어떤 장소를 거쳐간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생명의 장"이라고 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거대한 풀밭 계곡처럼 상상하는 이곳은 기독교에서는 "천국", 이슬람교에서는 "잔나", 힌두교에서는 "스바르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전생의 기억 중 다음 생에 가져올 세 가지 기억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영혼은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한 목소리

한 얼굴

한 순간

두 주인공은 이미 전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장에서 서로와 관련된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찾는중입니다.

타임라인

2개의 전생:

1) **SOPHIE**와 **MARCEL**, 1800년 말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2) **ANNA** (안나)와 **EUGENE** (유진), 부산, 1950/1960년대

이 두병의 전생에서는 역운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Blue”는 세번째 삶을 묘사합니다 (다시 만날 마지막 기회).

이 삶에서 (이야기의 현시점) 소녀는 **Isabel**이라 하는 어린 이탈리아 소녀입니다.

뜻밖에도 다른 영혼은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환생한다 (이유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번 생에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서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어떻게 Isabel에게 다시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21 Copyright Accademia Nemo Srl
All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and is covered by copyright
laws.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ory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i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주인공1: Isabel

Isabel, 23살의 젊은 여성, 대도시에 사는 음악 신동입니다.
고아이지만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올라 연주자가 되는 꿈을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극장들의 가장 큰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음악을 연주하는 건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bel은 공연을 쉬고 피렌체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주인공2: Angel (이름 없음)

항상 생각에 잠겨있는 비열하고 부주의한 천사입니다.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천사들과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등대 꼭대기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보냅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항상 하얀 제복같은 옷을 입습니다. 머리도 하얗습니다. (흰색은 무색으로 이해됨)

.....
참고: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모든 천사는 완전히 흰색입니다 (색 없음).

모든 남자 천사들이 같은 이름인 "ADAM"이라고 칭하고 여자 천사들이 "ZOE"라고
합니다.

매일 인간이 깨어날때 천사들은 인간, 아이, 어른, 노인 (차이가 없음)의 수호천사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나 도시로 향합니다. (건물의 꼭대기에 사는데 다른 경우에는
조각상의 꼭대기에 삽니다.)

천사들은 보호하고 싶은 인간을 선택합니다.

예고편의 첫 장면 중 하나에서, 우리는 많은 천사들이 피렌체 위를 날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인간 위에 멈춰 섭니다.

오직 아이들만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천사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어린 금발 머리 소녀 옆에 내려옵니다.
웃고 즐거워하는 아이가 천사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길 덕분에 이전에 무색이었던 천사의 옷과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변했고, 인간과
수호천사의 새로운 유대감을 이뤄냈습니다.

이 장면은 2차적인 이야기로서 다른 정면에서 반복됩니다.
.....



2021 Copyright Accademia Nemo Srl
All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and is covered by copyright
laws.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ory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i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patent office

1화

인생의 들판 (안나)

농경지의 계곡입니다.

거기에는 강한 바람이 풍덩풍덩 넘는 풀을 파도처럼 만듭니다.

한 소녀의 모습, 간단한 옷을 입은 소녀 (50년대 스타일), 계곡을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그녀의 삶의 물건들과 이미지들이 돌고 있습니다 (소리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목소리 하나, 얼굴 하나, 기억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장면 밖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여자에게 방금 떠난 그녀의 삶에서 세 가지를 고르고, 다음 삶에 함께 가져가도록 제안합니다.

그녀 주위를 날아다니는 물건이 그녀에게 닿을 때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통과하고 그녀의 육체 주위에 그녀의 인생 장면이 형성됩니다.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그녀 주위를 돌고 그녀의 몸을 통과합니다...

이제 그 소녀는 신부복을 입고 있고, 그녀 옆에는 유진(Eugene)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안나,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합니다.

유진은 안나를 안아주고 키스할 때 두 인물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사라집니다.

하늘 위의 피렌체의 구름으로 내려다보면서 화면이 이동합니다...

현재 시제. 피렌체 중앙역.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하고 많은 승객들이 서둘러 내립니다.

계단을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소녀의 발을 봅니다. 그 소녀는 카트를 플랫폼에 놓고 침착하게 역의 중심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묶고 아주 큰 모자를 쓴 채 태양으로부터 고운 피부를 지켜주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 Isabel입니다.

역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Isabel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고, 태양으로부터 지켜주던 모자가 벗겨집니다. Isabel은 도시에 와서 행복해하며 눈을 감고 미소 짓습니다.



2021 Copyright Accademia Nemo Srl
All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and is covered by copyright
laws.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ory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i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patent office

갑자기 Isabel은 부름 소리를 듣고 돌아서 자신의 뒤에 있는 역 대신 50년전의 부두가 보입니다. 몇몇 선원들은 아주 큰 배에서 피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선원이 그녀에게 짐을 주며 경고합니다. "아씨, 짐을 잊지 마세요."
Isabel은 자신을 본다. 다르게 옷을 입고 더 우아하며 고전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장면 빛바랜 오래된 사진처럼 보입니다. 모든 색상의 채도가 낮습니다)

짐을 챙기자마자 이사벨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익숙한 악기의 케이스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소년이 발견된 모자를 들고 Isabel을 만나러 갑니다.
"환영합니다, Isabel. Isabel 맞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는 음악가이지요. 저는 Alberto라고 합니다. 호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차역을 다시 마주합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여전히 동요된 이사벨은 불편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 Isabel은 인정받지 않기를 바랐고 평범한 보통소녀들처럼 조용한 휴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외모의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렌체에 있는 동안 값비싼 옷과 패셔너블한 헤어스타일을 훨씬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곤 했습니다.

Isabel은 또한 그 달의 휴가 동안 자신만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고 업무 약속을 무시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Bordino"라고 하는 작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합니다. (피렌체 Ponte Vecchio 근처에 진짜 레스토랑입니다)

Isabel이 Bordino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일련의 장면. 식당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는 장면. 소파에 앉아 Isabel를 부르는 듯한 악기 케이스를 바닥에서 응시하는 장면. 소파에 앉으며 Isabel은 연주하도록 설득한다고 바닥에 악기 케이스를 대고 응시하는 장면.

며칠 후 Isabel은 잠에서 깨어나 악기를 살펴봅니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을때 새로운 곡조가 마음속에서 계속 웅웅거리기 때문에 연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빈 악보 앞에 제목("영혼의 색")을 적고 지우는데... 비올라를 들고 눈을 감고 멜로디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장면 전환

ANGEL

고전 도시의 골목 사이에 천사의 모습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발코니에 들렀다가 타워에 들렀다가 정확한 목적지 없이 다시 날아갑니다.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장면 전환

ISABEL

저음에 비올라 현이 음을 연주하기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기억이 그녀를 압도합니다...



2021 Copyright Accademia Nemo Srl
All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and is covered by copyright
laws.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ory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i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patent office

Isabel은 연주하고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익숙한 생활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손으로 끌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ANGEL

날고 있을때 Isabel의 비올라 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음들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음이 그를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타워와 건물의 벽에 끌립니다.

지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통 천사는
아프지 않습니다...)

음악은 탈출구 없이 가차없이 끌어당깁니다.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천사는 건물 위로 던져집니다. 매번 건물 안의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큰 창문이 있는 건물에 (천사의 주관적인 시각) 곧 충돌할
것이것이라 걸 느낍니다. (Isabel의 호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Isabel의 방 안에 있습니다

(방에 끝쪽 시각에서), 구른 천사가 누워있고, 상처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에너지로) 공중에 떠 있는 잔해와 유리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겁에 질려 놀란 얼굴로 우리를 향해 돌아섰고, 그 사이 유리 조각과 잔해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소리 없이 튕겨 사라지는데...

Isabel은 마치 방에서 어떤 기운을 느낀 듯 잠시 연주를 멈춥니다 (천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가는 멜로디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다시 같은 음을 연주하기 시작할때, 천사는 다시 한번 그 음악에 매료되어 무기력하게
소녀 앞으로 끌려간다.

이제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간격입니다.

천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얼굴의 특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안나..."라고 속삭입니다.

(참고: 안나는 전생에 부산에서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때 Isabel은 눈을 뜨고 (Isabel이 그녀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주관적인 시각)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안나?"라는 목소리가
반복됩니다....

그 이름을 말한 것에 놀란 손가락이 연주를 멈췄다.



2021 Copyright Accademia Nemo Srl
All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and is covered by copyright
laws.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ory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is deposited
at the international patent office

동시에 천사를 마비시킨 멜로디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쇠사슬 없이 천사의 몸이 소녀에게로 떨어졌습니다. (포즈로 포옹과 비슷함)
천사의 몸은 Isabel에게 떨어졌고 가로질러 갔습니다.

Isabel의 어깨에서 본 모습

천사는 놀라고 겁에 질려 소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

천사는 더 이상 백인이 아니라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변신은 이때 일어납니다). 천사들은 대개 색깔이 없지만 (흰색은 색깔이 없음을 나타냄), 이제 그녀의 옷은 Isabel처럼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파란색을 입).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간이 천사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악으로 천사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Isabel이었다.

.....

참고 - 나머지 이야기 요약

이야기는 Isabel과 Angel이 소통을 시작하는 순간을 계속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sabel은 Angel을 보고 느끼기 시작하고 이번생에서도 다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갑자기 과거가 그들의 삶에 다시 나타나 이번에도 충격을 준다. Isabel은, 만나었을 때 두 번째 삶 동안, 사랑스러운 유진과 포옹하고 작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갑자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운명은 Isabel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둘 다, 아니 천사만이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사는 Isabel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보이는 죽음의 천사와 맞서야 합니까?

세 주인공의 삶을 잇는 붉은 실을 통해 그들이 마침내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음의 천사가 Isabel과 Angel의 운명에 쓰여진 것을 완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잊혀진 이야기를 기억하고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